광주형 일자리 사업 인프라 구축 가속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상생형일자리 지원·지자체 출자 근거 담아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관련 인프라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균형발전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중앙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근거 마련 ▲지자체 및 출자·출연기관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 출자출연의 근거 마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출자·출연 받은 기관·법인·단체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규정 마련 등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조례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했지만, 법이 통과돼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법인은 수의계약으로 국유 재산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시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토대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건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2021년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모델인 자동차 공장 준공에 맞춰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복지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정부와 광주시가 3천억원을 투자해 빛그린 산단에 행복·임대 주택, 노사동반지원센터, 직장어린이집, 개방형 체육관, 진입 도로 등을 짓는다.

GGM 설립은 지자체, 노동자, 기업, 시민사회 등 사회적 대화와 상생협약을 통해 적정 노동시간의 구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국 최초 '상생형 지역 일자리'이자 모범사례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벤치마킹 요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공장 사업은 직·간접고용 1만 2,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되고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열 광주시 자동차산업과장은 "앞으로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 지원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민주당 '인재영입 7호'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 인재영입 7호인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한정 의원, 설훈 의원, 이해찬 대표,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박광온 의원,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 /연합뉴스

4·15 총선 레이더

양향자 "'이기는 광주' 만들겠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는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정치인, 기관단체장, 주민 등 6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저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인재'는 광주의 경제시계가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담았다.

양 예비후보는 "양향자는 이기고 싶다"며 "사람을 이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로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경남 창원과 경쟁해 이기고 싶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조만간 생산할 울산과 경쟁해 이기고 싶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삶을 소중히 가꿔온 청년이라면 일자리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도시 광주, 재능있는 청년이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가 있는 도시 광주를 만들고 싶다"며 "AI 창업 기업이 1조 원대 매출로 유니콘 기업이 되는 광주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황애란 기자

이남재 "청년기본법 실효성 있는 정책 뒤따라야"

이남재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는 12일 "청년기본법의 제정으로 청년들의 아픔과 고민을 담는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청년기본법'은 청년연령을 만19세~39세로 정의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며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예비후보는 "부모보다 못사는 첫 세대, N포세대, 헬조선, 청년실신(실업+신용불량)이란 말까지 나오는 것이 청년의 현실이다"며 "최근 실업과 사회적 고립으로 무기력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청년고독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 1인 가구 중 청년층은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아 직업 안정성이 취약하다"며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비자발적 고독사로 내몰리는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황애란 기자

이용빈 '여성 특보단' 출범…경선·총선 승리 다짐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예비후보가 여성 특보단 발대식을 갖고 '내 삶이 바뀌는 반가운 정치'를 함께 만들어 가기로 했다.

여성 특보단은 ▲여성 정책 발굴 ▲여성 정치참여 강화 ▲출산 및 보육제도 개선 등을 발굴해 이용빈 후보의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여성 특보단으로는 윤혜영 광산구의원, 김향희 여성인재영입위원장, 박세향, 조영님 여성특보 등 오피니언리더, 활동가, 전문가, 주부 등 각자의 위치에서 맹렬히 활약 중인 여성 8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예비후보는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는 여성의 따뜻한 리더십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여성 인재 발굴,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및 강화, 양성평등 제도 확대, 여성이 행복한 시대 등 새로운 100년의 평등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윤영봉 기자

우기종 출판기념회, 2천명 성황…이총리 추천사

우기종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예비후보가 지난 11일 목포 오거리문화센터에서 저서 '함께 행진하는 담쟁이처럼'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출판기념회에는 2,0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고, 이낙연 총리의 부인인 김숙희 여사가 축사를 해 주목받았다. 또 책 뒷면에는 정치인의 저서에 한 번도 추천사를 써준 적이 없다는 이 총리의 추천사가 눈길을 끌었다.

김 여사는 "남편이 와야 하는 자리인데 현직이라는 제약 때문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다"며 "그래서 꿩 대신 닭이라고 닭이 내려왔다"며 우 예비후보를 격려했다.

우 예비후보는 "'함께 행진하는 담쟁이처럼' 이라는 책 제목을 보듯 제가 경제정책 전문가, 예산전문가이지만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다"며 "목포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도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제가 힘을 내서 성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주철현 "여수사람들 삶의 희망 만들겠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1일 오후 여수시민회관에서 정치인과 지지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념회와 북·문화 콘서트를 개최했다. 저서 '여수와 산다'는 주 예비후보가 여수 곳곳에서 만난 시민의 삶을 담은 에세이다.

출판기념회는 1부, 출판기념식과 2부, 북 문화·콘서트로 참석자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진행됐다.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주 전 시장은 검찰 퇴직 후 고향으로 내려와 4년 동안 여수시장을 지내 그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다"며 "시민들이 이런 정치인을 잘 쓰면 여수는 물론 국가의 지도자로 큰 역할을 맡길 수 있다"고 응원했다.

주 예비후보는 "여수의 발전을 위해 더 듣고, 더 보고, 더 살피겠다"고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신정훈 "나주·화순 미래 꿈 실현할 것"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예비후보가 지난 11일 나주 스포츠파크에서 '지방에서 희망이 있는 나라' 출판기념식을 개최했다.

출판기념회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개호, 최재성, 김두관, 서삼석, 송갑석, 손금주 의원과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강인규 나주시장, 구충곤 화순군수, 최형식 담양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김산 무안군수, 이재수 춘천시장, 지역주민 등 5,000여명이 참석했다.

신 예비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역사를 이어받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밀알이 되겠다"며 "30여년의 민주화 및 정치 경험을 살려 나주와 화순의 미래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